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이 선 옥**

I. 서 론

서구사회에서 1950-60년대의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부터 공적 서비스를 비공식적 서비스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비공식적 서비스에 사회적지지 망을 활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관료제적 성격이 강하여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못 미치는 공적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가 공적 지지서비스의 미비를 비공식적 지지망으로 대체하는데 활용되며, 우리나라의 혈연 중심적 문화와 관습은 비공식적 지지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사회적 지지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측정도구는 박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박지원, 1985), Norbeck의 NSSQ(Norbeck, 1981), PRQ(Brandt & Weinert, 1985)등이며,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로는 김 등(1999)이 발표한 NSSQ와 PRQ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NSSQ의 일부 문항과 PRQ의 양육영역의 문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심리적인 속성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정의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이 도구들이 유사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들과 구별되는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정신건강 개념과 구분되는지를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NSSQ는 응답자가 실제 지지를 받은 지원과 지지의 정도를 기입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며 PRQ Part2는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인지하는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측정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Campbell과 Fiske가

* 본 연구는 1999년도 한국방송대학교 기성희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한국방송대학교 보건과학과

개발한 다속성 다방법 접근법(multitrait - multimethod method)을 사용하여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인 SNM, NSSQ, PRQ Part2의 사회적 지지와 하부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족지지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알아보고, 2) 각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토해보고자 시도되었다.

II. 문헌 고찰

1. 사회적 망 분석에 사용되는 특성

사회적 망은 사회적 지지의 배분에 관련된 사회적 유대의 집합체로서 구조적, 상호 작용적, 기능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상호 작용적 특성은 규모, 연령, 연계의 수, 친밀성, 개방성, 근접성, 강도 등이 포함되며, 상호작용적 특성에는 빈도, 지속기간, 교류내용, 방향성 등이 포함된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기에는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기능적 특성이 배제되는 약점이 있다. 사회적 망의 구조적, 상호 작용적 특성이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사회적 지지를 결정하여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능적 특성은 망 구성원들간에 교환되는 지적 행동을 측정한다.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나왔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차원적 지지기능으로서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표 1> 사회적 망의 특성

특성	구성요소
구조	규모, 연령, 연계의 수, 친밀성, 개방성, 근접성, 강도
상호 작용	빈도, 지속기간, 교류내용, 방향성
기능	교환되는 지지 행동

2. 사회적 지지의 사정방법

1) 사회적지지 행동 제공자에 관한 질문지법

구체적인 지지행동을 제공하는 사람에 관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인 지지적 행동을 토대로 망 구성원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유대를 사정하고 유대의 구조적, 상호작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적 특성인 지지적 행동을 상세히 측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제공된 지지행동의 영역이 중복되거나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될 수 있다. 간병, 문제에 대한 조언, 금전적 보조, 교통편의제공, 가사보조, 식품보조 등의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에 관하여 질문하므로 연구자가 지지적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 형식적 관계에 있는 망 구성원에 관한 질문지법

친척, 친구 이웃 등 형식적 관계에 있는 망 구성원들의 지지에 관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서 형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성격이 지지적이든 비지지적이든 모두 포함된다. 개인의 망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의미가 반영되지 못하며, 주요지지 제공자이면서도 관계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배제될 수 있다.

3) 가깝고 의미 있는 타인들을 열거하도록 하는 질문지법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가깝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지지에 관하여 응답하는 방법으로서 가까운 사람들간의 유대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가 사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많은 지지적 상황을 질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가깝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해석하는바가 상이하여 조사된 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표 2> 사회적 지지의 사정방법

방 법	장 점	단 점
사회적지지 행동 제공자에 관한 질문지법	객관적인 지지적 행동을 토대로 망 구성원을 규명	비합리적, 비효율적, 영역 중복, 일관성과 연계성 결여
형식적 관계에 있는 망 구성원에 관한 질문지법	형식적 관계의 파악, 가까운 사람들간의 유대관계 규명	주관적 의미 반영안됨. 관계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배제됨.
가깝고 의미 있는 타인을 열거하도록 하는 질문지법	응답자가 사정과정에 적극 참여. 지지적 상황 질문 불필요	조사 자료의 일관성 결여, 응답자의 응답태도가 영향을 미침.

3. 간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1) Brandt와 Weinert의 개인적 자원 질문지 (PRQ)

Weiss(1974)의 관계기능 모델(model of relational function)에 근거하여 제작된 도구로써 PRQ는 2부분으로 되어있다. 1부는 조력이 필요한 8개의 생활상황에 대한 지지를 응답하도록 만들어졌다. 8개 상황에는 즉각적인 도움, 가족의 질병에 대한 도움, 단기 질환시의 도움, 가족이나 친구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고독감, 경제문제, 전반적인 생활의 관심사 등이 포함되어있다. 지난 3개월간에 경험한 상황에 대하여 신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사회적 지지와 그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2부는 자조개념(self help ideology)을 재는 7점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람의 가치(worth, value), 집단 소속감(social integration, integral part of a group), 결속감 (attachment, intimacy), 양육의 기회 (opportunity for nurturance), 정보/정서/

물질적 도움 이용의 5측면을 포함한다.

처음 1981년에 개발되었으나 1982년에 일부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1985년에 다시 직장문제 혹은 개인적 관심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표 3> Brandt와 Weinert의 PRQ의 구성요소

구 성	요 소	측 정
part 1 8상황	조력이 필요한 8상황	즉각적인 도움, 가족의 질병에 대한 도움, 단기 질환시의 도움, 가족이나 친구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고독감, 경제문제, 전반적인 생활의 관심사
part 11 5측면	자조개념	25문항 7점 척도

2) Norbeck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NSSQ)

Robert Kahn(1979)의 정의에 근거하여 Norbeck이 만든 측정도구이다. Kahn과 Autonucci는 사회적 지지가 애정, 긍정, 도움의 세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간 교류라고 본다. 애정의 교류는 존경심(respect)이나 호감(like) 혹은 사랑(love)의 감정표현을 의미하며, 긍정의 교류는 발언의 적절성이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confidence), 동의(agree)의 감정 표현을 의미한다. 도움은 물품, 금전, 시간 등의 직접적인 보조를 의미한다.

이 도구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기능적지지, 총 지지망, 총 상실의 3가지 변수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대상자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을 나열하게 한 후, 각 지지원에게서 받는 지지의 종류를 5점 척도로 점수화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많음을 의미하며, 지

지망은 나열된 지지원 수의 총 합으로 계산한다. 국내에서는 오가실(1984)에 의하여 우리말로 번역되어 여러 연구에 사용되었다(오가실과 한정석 1985, 채수원과 오경옥 1992, 이은숙 1995, 권인수 2000, 문성미 2000).

총 기능적 지지는 애정(affect), 긍정(affirmation), 도움(aid)의 영역에 각각 2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정 영역은 사랑과 존중정도를 질문하며, 긍정 영역에는 신임, 동조와 지지정도를 질문한다. 도움영역은 돈 빌리기나 질병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등이 포함된다. 총 지지망은 지지 제공자와의 관계 유지기간과 접촉빈도에 관한 질문 2개를 포함한다. 상실의 측정은 최근에 주위 사람을 잊은 경험 유무와 상실의 수와 상실의 정도에 관한 질문 3문항을 포함한다.

Norbeck은 1981년 개발 당시 실시한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에서 $r = .95 - .92$ 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96의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고한 바 있다. 조사-재조사에서 애정문항의 상관계수는 .97, 긍정문항 .96, 도움문항 .89로 문항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질문지는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되어졌다(오, 1985; 오, 1990). 도구검증을 위한 선행연구에서(김희순 등, 1999) 606명에게 사용하여 산출한 Cronbach's α 값은 애정영역이 .93, 긍정영역이 .94, 도움영역이 .57이였다.

<표 4> NSSQ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척도
총 기능적지지	사랑, 존중, 신임, 동조, 돈 빌리기, 아플 때 도와주기
총 지지 망	관계 유지기간, 접촉빈도
총 상실	주위사람을 잊은 경험 유무, 상실의 수, 상실의 정도

4. 연구경향

Caplan(1974)은 사회적 지지가 정보(information), 인지적 지도(cognitive guidance), 유형적 자원(tangible resources), 정서적지지(emotional support)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력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싼 의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Cohen & Leonard Syne, 1985)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차원은 서로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대인관계 조직망의 특성으로서 지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 접촉빈도, 지속성,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지, 혹은 고립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며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가지는 인간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가를 나타내는데, 개인이 받았다고 인식하는 지지의 유형과 량,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지지자원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지(objective support)와 본인이 지각하는 지지(perceived support)가 다르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즉 개인에게 지지자원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지가 주어져도 이를 지지로 지각하지 않으면 지지로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부분의 간호학연구가 기능적 지지를 중심으로 지지의 양과 관련된 다른 연구변인들간의 상관성 연구이다. 박지원의 도구를 사용한 국내 간호학 연구의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능적지지 부분만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양영희 1995, 조무용 1995, 최연희 1995,

이미자 1997, 이미자 1998, 정마리아 2000), PRQ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part 2의 25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이종경과 한애경 1996, 최영신 1997, 탁영란과 이희영 1997, 이은영과 탁영란 1999, 강문희 1999, 박지현과 오경옥 2000).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전문가의 역할은 유사한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호 부조집단을 조직하도록 돋거나 기존의 집단이나 비공식적인 치지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주는 것이다. 상관성 연구는 간호현상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들의 발견을 위한 목적으로는 가치가 있으나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하여 간호중재에 그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보다는 구조적, 상호 작용적 특성과 관련된 정보가 간호중재에 보다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므로 이런 점에서 연구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구조적 특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가 고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절염환자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기능적 지지의 량에 관한 정보보다는 지지제공자의 크기, 빈도, 안정성, 동질성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요소를 반영하는 지지모임이나 운동모임을 만들어주던 가정간호사의 방문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NSSQ는 사회적 망의 구조적 특성으로 관계 유지기관과 접촉빈도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기능적 지지의 측정방법이 응답자가 생각나는 사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질문지를 작성하는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의미 있는 사람을 단 시간 내에 생각해서 기록하게 되는 경우에 미혼자들 중에서 혼히 가족을 빼고 친구와 동료들을 나열한다거나 기혼자들 중에서는

가족만 나열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간호학 영역에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사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는데(이선옥, 2001), 제공된 지지행동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다.

PRQ의 경우 선행연구(김희순 등, 1999)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값이 양육영역에서 .44로 산출되어 이 영역의 부적합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심(1987)의 연구에서도 양육영역을 제외하고 사용된 바 있다. 유사개념과의 변별력에 관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NSSQ의 6개 항목 중 도움항목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57$ 로 낮게 보고있어서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NSSQ는 기능적 지지의 3측면에 관하여 각각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한 영역의 알파계수가 낮은 것에 대한 확인작업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Weinert(1987)는 PRQ82 Part 2에 관한 구성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Beck의 우울척도와 Spielberger등의 기질불안 도구와의 상관계수를 조사하였는데, BDI와는 $r = -.33$, 기질불안과는 $r = -.39$ 로서 이를 개념들과는 구별되는 결과로 보고한 바 있으나, 국내 자료에 근거한 판별타당도 연구는 없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49 명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으로서 약 20분이 소요되는 질문지에 성실히 응답하는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은 출석수업을 위하여 서울지역 학습관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보조원이 작성과정을 도왔다.

2. 연구도구

총 6개의 도구에 포함된 113문항이 설문에 사용되었다. 2개의 자기 기입식 측정도구인 NSSQ와 Tracy 와 Whittaker의 사회적 망지도(Social Network Map, SNM), 종화평정척도로 된 전반적지지 측정도구인 PRQ part2, 종화평정척도로 된 가족지지 측정도구인 Moos 의 도구, 2개의 속성이 다른 척도인 기질불안측정도구와 우울 측정도구 등이다. 즉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3개의 도구 중에서 두 개는 자기 기입식이며, 한 개는 종화평정척도이다. 가족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총3개로서 2개는 자기기입식 지지척도 중에서 가족지지만을 분석함으로서 측정이 가능하며, 1개는 종화평정척도이다.

1) NSSQ

문현고찰 부분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이 도구는 대상자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을 나열하게 한 후, 각 지지원에게서 받는 지지의 종류를 5점 척도로 점수화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많음을 의미하며, 지지망은 나열된 지원 수의 총 합으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가족으로 표시된 부분만을 따로 계산하여 가족지지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부분을 수정하였다. 첫째는 도움 영역의 질문인 “만약 귀하께서 갑자기 돈 만원을 빌려야 할 경우나 기타 갑자기 도움이 필요 할 때 이 사람은 귀하를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만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이 표현은 선행연구(김희순 외, 1999)에서 적절치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 둘째는 응답자가 응답지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응답란의 배열을 변경하였으며 응답 란을 25개에서 15개로 축소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김희순 1999, 채수진 1998)의 조사에서 한 국인의 지원 수는 평균 12.95라는 점에 근거

하였다.

2) Brandt와 Weinert의 개인적 자원 질문지 (PRQ85 part2)

문현고찰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본 도구는 자조개념(self help ideology)을 재는 7점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람의 가치(worth, value), 집단 소속감(social integration, integral part of a group), 결속감(attachment, intimacy), 양육의 기회(opportunity for nurturance), 정보/정서/물질적 도움의 이용의 5측면을 포함한다.

3) Tracy 와 Whittaker의 사회적 망 지도 (Social Network Map, SNM)

Tracy 와 Whittaker는 1990년에 사회적 지지자원을 사정하는 도구로서 사회적 망 지도를 개발하였다. 망 지도는 망 구성원을 사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망 구성원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친밀 정도, 접촉빈도, 관계 지속기간 등을 사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망 지도를 통하여 구조적 특성으로서 지지체계의 크기와 유형을 포함하며, 기능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상호성을 포함한다. 기능적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물질적 지지(concrete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에 대한 지지(informational support)라는 3개 하부구조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물건이나 금전적 도움, 집안 일이나 자녀 돌보기, 의논상대, 위로, 정보제공,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는 가족으로 표시된 부분만을 따로 계산하여 가족지지 점수로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채수진(1998)이 사회적 망 지도에 있는 요소를 질문지로 개발하여 아내구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의 정도 3문항을 6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Moo의 가족지지 측정도구

Moo와 Insel(1974)에 의하여 개발된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90문항 중 가족지지차원에 해당하는 23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의 현재상태에 대하여 가족구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가족의 결합에 관한 문항과 가족구성원들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나타낸 가족의 표현에 관한 문항이 들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다. Cronbach's $\alpha=0.80$ 이었다.

5) Beck의 우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Beck등이 개발하고 김연(1985)이 번역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가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우울점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Beck은 우울의 생리적 증상으로 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 성적 홍미감소, 수면방해가 있으며, 정서적인 증상으로는 낙담, 애착, 감정표현 상실, 부적절한 감정상태, 기쁨이나 즐거움의 근원적 상실, 유쾌한 반응의 상실 등이 포함되며, 행동증상으로는 울음, 계으름, 무기력, 정신활동의 저하, 자살시도가 나타나며, 인지적 증상으로는 부정적 기대, 비관, 부정적 자기평가, 자기비난, 우유부단, 동기상실, 자살사고 등이 있다고 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점으로 배열되어 있다. 0-13점은 정상, 14-25점은 경우울증, 26-63점은 중 우울증으로 구분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국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6) 기질불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pilberger가 고안한 것을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으로서 한국인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통하여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이다. 기질불안은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마다 4점척도의 점수가 주어지며, 검사의 반응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치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도구는 간호학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값이 높아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도구로 알려져 있다.

불안이란 임박한 위협에 대한 긴장, 우려, 두려움의 감정으로 정의된다. 불안은 위협받는 감정에 근거하여 상징적이고 예견적이며 불확실한 요소를 가진다. Spielberger 등은 불안의 개념을 상태불안과 기질불안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불안은 인간의 일시적인 감정상태로서 상황에 따라서 그 강도가 변화하는 정서상태로 규정한다면 기질불안은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가지며 상황에 따른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심리적 특성이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다속성 다방법 분석은 pearson r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item total correlation에 의한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서술적 자료의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21-30세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군이 36.6%, 42-50

세 군이 8.8%, 20세 이하가 4.8%이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69.9%, 남자가 30.1%이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61.4%, 기혼이 36.5%, 이혼이 1.2%, 사별이 0.8%이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55.0%, 고졸이 45.0%이며, 직업은 유직자가 50.6%, 무직자가 49.4%이다. 경제수준은 54.3%가 '하'에 응답하였으며, '중'에 30.5%, '상'에 15.3%가 응답하였다. 가족 수는 3~4명 군이 54.2%이며 5~6명 군이 25.7%, 2명 군이 16.1%, 7명 이상 군이 4.0%이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연령분포가 50세 이하이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이라는 점을 특성으로 들 수 있다.

2. 다 속성 다 방법 분석(multivariate - multimethod matrix)

Campbell과 Fisk의 다 속성 다 방법 분석

은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다. 수렴 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다른 자료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더라도 그 개념의 의미는 같거나 유사하며,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속성을 측정한 결과 보다 그 상관성이 높아야 인정된다. 판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1) 수렴타당도

이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지지 개념의 수렴 타당도는 부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공자에 관한 지지행동을 자기 기입식으로 측정하는 도구인 SNM과 NSSQ의 상관계수 $r = .70$ 으로서 높았으나 같은 개념을 총화평정척도로 측정하는 PRQ 85 part2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r = .30$, $r = .38$ 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PRQ 85 part2에 관한 수렴타당도가 낮다.

가족 지지의 수렴 타당도는 SNM/가족과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수(%)	평균(표준편차)
연령	20세 이하	12(4.8)	30.7(6.3)
	21~30세 이하	124(49.8)	
	31~40세 이하	91(36.6)	
	41~50세 이하	22(8.8)	
성별	남	75(30.1)	
	여	174(69.9)	
결혼상태	미혼	153(61.4)	
	기혼	91(36.5)	
	이혼	3(1.2)	
	사별	2(0.8)	
최종학력	고졸	110(44.2)	
	대졸이상	137(55.0)	
직업	있음	126(50.6)	
	없음	123(49.4)	
경제정도	하	135(54.3)	
	중	76(30.5)	
	상	38(15.3)	
가족 수	2명 이하	40(16.1)	3.9(1.4)
	3~4명 이하	135(54.2)	
	5~6명 이하	64(25.7)	
	7명 이상	10(4.0)	

NSSQ/가족의 상관계수 $r = .68$ 이었으며 Moo척도와의 상관계수 $r = .47$, $r = .53$ 으로서 상관계수가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으나 측정방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서 수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2) 판별타당도

사회적지지 판별 타당도는 SNM의 경우 NSSQ와의 상관계수 $r = .70$, PRQ 85 part2 와의 상관계수 $r = .30$ 으로서 기질불안과의 상관계수 $r = -.13$, 우울과의 상관계수 $r = .00$ 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판별력이 높다. NSSQ의 경우 PRQ 85 part2와의 상관계수 $r = .38$ 은 불안과의 상관계수 $r = -.29$, 우울과의 상관계수 $r = -.12$ 와 역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RQ 85 part2의 경우 기질불안과의 상관계수 $r = -.32$, 우울과의 상관계수 $r = -.20$ 으로서 판별력이 있다.

가족지지의 판별 타당도는 SNM/가족의 경우 NSSQ/가족과의 상관계수 $r = .68$, Moo척도와의 상관계수 $r = .47$ 로서 기질불안간의 상관계수 $r = -.18$, 우울과의 상관계수 $r = -.11$ 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판별력이 있다. NSSQ/가족의 경우 Moo척도와의 상관계수 $r = .53$ 은 기질불안과의 상관계수 $r = -.22$, 우울과의 상관계수 $r = -.14$ 로서 큰 차이를 보여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o척도의 경우 SNM/가족, NSSQ/가족과의 상관계수 $r =$

$.47$, $r = .53$ 이며, 기질불안과의 상관계수는 $r = -.22$, 우울과의 상관계수는 $r = -.11$ 로서 큰 차이를 보여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내적 일관성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7>과 같다.

NSSQ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86 이었다.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돈 빌리기”에 관한 것이었다. PRQ 85 part2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84 이었으나,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30보다 낮은 항목이 6개 포함되어 있었다.

SNM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알파계수는 .85 이었으며,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항목은 ‘물건이나 금전적 도움’이었다.

V. 논 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 있어서 지지자에 대한 자기 기입식의 SNM과 NSSQ의 상관관계 $r = .70$ 은 Likert 척도인 PRQ part2의 상관계수 보다 높아서 부분적으로 수렴성이 인정되었으나,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두 도구간의 상관성이 이라는 점에서 이 결과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SNM의 문항이 NSSQ의 문항보다 더 구체적

<표 6> 다 속성 다 방법 분석표

	SNM	NSSQ	PRQ	SNM/가족	NSSQ/가족	Moo/가족	불안	우울
SNM	1.00	0.70***	0.30***	0.39***	0.37***	0.21***	-0.13*	-0.00
NSSQ		1.00	0.38***	0.36***	0.49***	0.29***	-0.29***	-0.12
PRQ			1.00	0.31***	0.35***	0.45***	-0.32***	-0.20***
SNM/가족				1.00	0.68***	0.47***	-0.18**	-0.11
NSSQ/가족					1.00	0.53***	-0.22***	-0.14*
Moo/가족						1.00	-0.22***	-0.11
불안							1.00	0.26***
우울								1.00

* p< .05, ** p< .01, *** p< .001

<표 7> 내적 일관성 신뢰도

Raw Variables	Alpha if Item Deleted	Reliability Coefficient Alpha
Item Total Correlation		
NSSQ		
문항1(사랑)	0.746096	0.827456
문항2(존중)	0.647005	0.842268
문항3(신임)	0.705183	0.833236 $\alpha = .86$
문항4(동조)	0.681624	0.836488
문항5(금전)	0.590343	0.857127
문항6(질병)	0.621335	0.847597
PRQ85 part2		
문항1	0.604208	0.836791
문항2	0.590822	0.837319
문항3	0.557127	0.838741
문항4	-0.225956	0.868149
문항5	0.549474	0.837892
문항6	0.535133	0.838342
문항7	0.248868	0.851381
문항8	0.536242	0.840042
문항9	0.653684	0.834385
문항10	0.438595	0.841795
문항11	0.476309	0.841155
문항12	0.412005	0.843183
문항13	0.538667	0.838909
문항14	0.600376	0.836529
문항15	0.530088	0.838782
문항16	-0.266751	0.866986
문항17	0.197082	0.852885
문항18	0.547114	0.839676
문항19	0.661891	0.837299
문항20	0.553047	0.837636 $\alpha = .84$
문항21	0.420934	0.842512
문항22	0.640961	0.836178
문항23	0.411521	0.842851
문항24	-0.034440	0.858969
문항25	0.598037	0.838369
문항26	-0.034440	0.858969
문항27	0.598037	0.838369
문항28		
SNM		
문항1(물건이나 금전)	0.546720	0.846266
문항2(집안 일, 자녀 돌보기)	0.560021	0.842086
문항3(의논상대)	0.750435	0.804348 $\alpha = .85$
문항4(위로)	0.606494	0.831530
문항5(정보제공)	0.640846	0.825855
문항6(조언)	0.748884	0.806188

이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두 도구의 차별성에 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racy 와 Whittaker가 1990년에 제시한 사회적지지 체계도(Social Network Map, SNM)에 근거하여 개발된 채(채수진, 1998)는 가능적 사회 지지의 정도를 물질적 지지(concrete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에 대한 지지(informational support)라는 3개 하부구조로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질문에는 물건이나 금전적 도움, 집안 일이나 자녀 돌보기, 의논 상대, 위로, 정보제공, 조언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서 용어가 보다 구체적이다. 본 연구에서 SNM을 사용한 것은 측정도구 중에서 측정 형식은 같으면서 지지의 구성요인을 달리한 도구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NSSQ의 수렴타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타 학문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대한 양호도 검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PRQ part2의 수렴타당도는 본 연구에서 낮게 나옴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본 조사에서 NSSQ와 PRQ 85 part2와의 상관관계 $r = .38$ 은 NPrbeck(1983)의 연구에서 $r = .41$, 김희순 등(1999)의 연구에서 $r = .30$ 과 유사한 결과이다.

수렴타당도와는 달리 판별타당도는 모든 도구에서 양호하게 나왔는데, 유사한 개념으로 선정된 우울과 기질불안 등과는 뚜렷한 구별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RQ 85 part2의 경우 Weinert(1987)의 연구에서 기질불안과의 상관성 $r = -.39$ 는 본 조사의 $r = -.32$ 와 유사한 결과이며 우울과의 상관성 $r = -.42$ 는 본 조사의 $r = -.20$ 보다 높았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관한 결과를 보면 NSSQ와 SNM 모두에서 물건이나 금전적 도움을 정서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한국상황에서 어떤 의미와 단어로 표현되는가를 연구한 오 등(1994)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지지속성을 연을 바탕으로 한 정, 믿음, 은혜, 도움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이

러한 결과는 연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NSSQ는 총 6개 질문 중 애정영역의 질문에는 사랑, 존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긍정 영역의 질문에는 신임, 동조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도움영역의 질문에는 돈 빌리기에 관한 도움과 질병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등이 포함되어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도구의 검증을 위하여 실시된 오가실 등(2000)의 연구에서 Norbeck의 사회적지지 질문지(NSSQ)의 도움영역에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만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우리의 설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돈의 액수를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역시 Chronbach's α 계수가 가장 낮다.

본 연구에서 PRQ 85 part2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4로서 Weinert(1987)의 .89, 김희순(1999)의 .83과 유사하나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20보다 낮은 항목이 6개나 포함되어 있어서 측정도구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NSSQ는 양호한 측정도구로 판단되며, SNM의 경우는 지지의 항목이 구체적인 특성을 가진 양호한 측정도구로서 연구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면 좋은 측정도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PRQ 85 part2는 수렴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에서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능적 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Likert형 척도는 지지원을 직접 기록해야 하는 도구보다 사용이 편리하여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다 양호한 Likert형 척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응답자가 주변 사람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는 NSSQ와 SNM은 자료를 수집하는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응답상황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거나 바쁜 시간인 경우에 주변사람을 기입함에 있어

서 생략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측정도구는 자료수집상황에 대하여 연구자가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1) Campbell과 Fiske가 개발한 다속성 다방법 접근법(multitrait - multi-method method)을 사용하여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인 SNM, NSSQ, PRQ Part2의 사회적 지지와 하부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족지지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알아보고, 2) 각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토해보고자 시도되었다.

SNM과 NSSQ의 수렴타당도는 높았으나 PRQ part2의 수렴타당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SNM/가족과 NSSQ/가족, Moo의 가족지지 척도는 수렴타당도가 높았다. 판별타당도는 기질불안과 우울과의 구분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사용된 모든 척도에서 판별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NSSQ, PRQ85 part2, SNM 모두에서 양호하였으나 PRQ85 part2의 경우 6문항에서 전체 문항과의 상관계수가 .20보다 낮아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기능적 지지를 측정하는 Likert형 척도는 연구시 사용이 편리하므로 보다 양호한 Likert형 척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유나 (1999).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 정신 질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채숙, 강규숙 (1986). 결장루보유자의 사회적지지 정도와 생활적응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6(3) 22-30.
- 김희순 외 (1999). NSSQ와 PRQ의 타당성, 신뢰성에 대한 연구. 간호학 탐구 8(2) :

- 161-180.
- 나기석 (1998). 빈곤노인의 사회적지지 체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숙, 오원옥 (1999). 장애아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지지 및 무력감. 아동간호학회지, 5(2), 151-166.
- 박현주, 서순림 (1999). 입원한 노인환자의 사회적지지, 무력감. 삶의 질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소희, 박인숙 (1996). 암환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와 부담감. 아동간호학회지, 2(1) 27-54.
- 성미혜 (1997). 신증후군 환아 어머니의 부담감과 사회적지지. 대한간호학회지, 29(1), 84-96.
- 신미경 (1987).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가실 외 (1994). Social Support의 한국적 의미. 간호학회지, 24(2) : 264-275.
- 이경남 (2000). 치매노인 수발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지지망 개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옥 (2001).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시그마 데타 타우 학술포럼 자료집.
- 이원숙 (1992).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 김정남 (1998). 유방절제술 환자의 배우자지지, 자아존중감 및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1), 74-88.
- 이종경, 한애경 (1996).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8(1), 55-68.
- 임경춘, 박광옥, 김복자 (1997). 파킨슨 질환자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일상생활동작 의존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9(3), 366-377.
- 장미경, 김경희, 정연강 (1997). 유전자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8(1), 74-88.
- 장인규 (1990). 알콜중독자 아내의 불안감소에 관한 사회적지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계화, 임명자 (1997). 입원한 암환자와 재가 암환자의 가족지지, 희망, 삶의 질 정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2), 253-363.
- 채수진 (1998). 아내구타 피해자가 인식하는 사회적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 (1995). 만성신부전 환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절망감의 관계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5(3), 549-561.
- 탁영란, 이영희 (1997). 발달장애아동가족의 가족 스트레스, 인지적 사회지지와 가족적 용. 아동간호학회지, 3(3) 42-51.
- 허선영 (2000).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larann Weinert (1987). A Social Support Measure : PRQ85. Nursing Research 36(5) : 273-277.
- Elizabeth M. Tracy and James K. Whittaker (1990). The Social Network Map : Assessing Social Support in Critical Practice, Family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October).
- Moos H. (1974).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 Family Process, 16(4) : 357-391.
- Norbeck J. S. (1981). Social Support : A Model for Clinical Research and Applica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July 1981. pp 43-59.
- Norbeck J. S., Linsey A. M., Carrieri V. L. (1983). Further Development of the Norbeck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 Normative Data and Validity

Testing. Nursing Research, 32(1) :
4-9.

- Abstract -

Key concept :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Reliability and Validity

A Social Support Measure :
Reliability and Validity

*Lee, Sun Ock**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social support and family support measuring tool. Two procedures were used : 1) Campbell and Fiske's multitrait-multimethod approach and item total correlation with Chronbach's α .

The result suggest that SNM, NSSQ, SNM/family, NSSQ/family is a valid and a reliable instrument for measuring social support. But PRQ part2 is low in convergent validity.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we have to more attention to a valid and reliable likert type scale for social support.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